

조선 선비의 회한, “미안하다, 사랑한다”

《빈 방에 달빛 들면》
송시열·이인상 외 지음 | 유미림·강여진·하승현 옮김 | 학교재 | 288쪽 | 값 12,000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랑받는 것만큼 충만한 감정도 없다. <사랑 밖엔 난 몰라>라는 심수봉의 노래가사처럼 여자로서 사랑받는다는 것은 때론 살아 있는 이유 그 자체이기도 하다. 아니 여성들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빈 방에 달빛 들면》 아내를 잃은 조선 선비들의 뒤늦은 회한이 담긴 제문을 발췌해 번역한 책이다. 남존여비가 당시 사회의 통념이었다고 하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간 쌓이온 정이 선비라고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당사자가 오죽했을까마는 평소 그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아내를 떠나보내는 제문으로 대신해야 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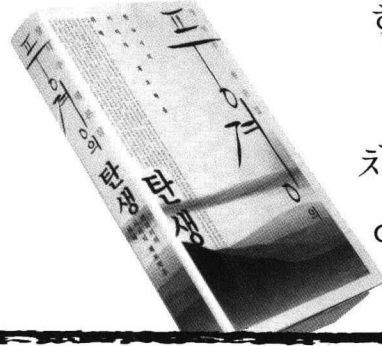
제문이라고 해서 틀에 박힌 글이 아니다. 각각의 글에는 남편이 품었던 고민과 아내가 겪었던 고통, 그리고 함께 나눴던 일들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당시 여인들의 존재 가치와 사회적 지위, 역할 등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면을 엿볼 수도 있다.

“아! 당신은 홀로 노고를 떠맡아, 집안 걱정을 하지 않게 해주었소. 굶주리는 가운데서도 책은 팔지 않아 내 우직함을 지켜주었고, 추울 때도 꽃나무는 때지 않아 내가 측은지심을 지닌 채 살아가게 해주었소. 간혹 산수를 유람하다 보면 기분에 취해 글이 장황해지기도 했소. 집에 돌아와 지은 글을 읊을 때면 당신은 그때마다 딱깁한 충고를 해주었소. 그리하여 내 글이 미사여구로 늘어져 도학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었다오.”

(이인상 <굶주리는 가운데서도 책은 팔지 않아>)

민족문화추진회 편 《한국문집총간》에 실린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제문 중 총 49편의 제문을 조선시대 생활사를 알 수 있는 풍속화와 함께 담았다. 미암과 부인 송덕봉을 위시하여 그들의 자녀와 일가친척 및 집안의 수많은 노비들이 서울과 향촌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린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 미암일기 1567~1577》을 재미있게 읽은 독자라면 반가워할 만한 책이다.

신동섭 기자



한국 근현대시 속에서 채집한 이미지, 이미지의 시학

《풍경의 탄생》 장석주 지음 | 인디북 | 516쪽 | 값 25,000원



“물성을 구성하는 사물 중에서 책을 가장 좋아하고 책 읽기의 열락에 빠져 사는” 문학평론가 장석주가 시집과의 오랜 숨바꼭질 끝에 포획한 결과물을 담은 《풍경의 탄생》을 내놓았다. 장석주가 시집 속에서 찾은 것은 다름 아닌 ‘이미지’. 장석주는 <나는 본다, 이미지를>이란 서문격의 글에서 “시집을 읽으며 포충망을 들고 나비를 채집하듯 이미지를 채집한다. 채집은 무작위적이다. 진리는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며 우연의 무리로 온몸을 드러낸다”며 이미지 찾기에 대한 지난한 과정과 결과를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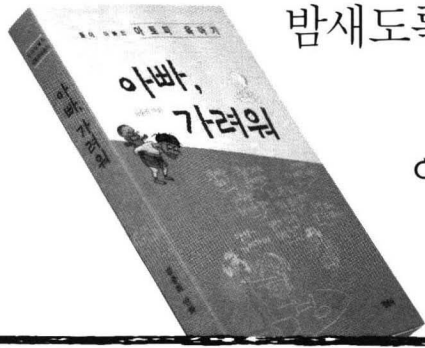
《풍경의 탄생》에서 장석주가 살핀 이미지의 중심축은 다섯 가지. 동물, 식물, 얼굴, 집과 고향, 몸이 그것이다. 김소월에서 나희덕까지 한국 근현대시의 전반을 횡단하며 시 속에 담긴 이미지들의 다양한 형상과 상징적 의미를 짚어내는 책은 평론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상당한 흥미를 제공한다.

황인숙 시인의 시 <밤과 고양이>에서는 야성을 잃은 고양이의 성질을 탐구하며, 최종천 시인의 시 <없는 하늘>에서는 몸이 무거워진 세에 대해 탐구한다. 백석의 승냥이, 송재학의 개, 채호기와 고진하의 뱀 등을 면밀히 뜯어본 장석주는 “시 속에 나타난 동물의 이미지란 인간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상징적 실존”이라고 진술한다. 동물의 시학인 것이다.

이 밖에도 생물적 생태의 구현체에서 사회적 생태의 구현체로 재해석되는 ‘얼굴의 시학’, 변방으로 밀려난 이들의 삶의 애환과 회귀의 상징이 되어버린 ‘집과 고향의 시학’, 세기 말 문명의 어둡고 축축한 내면에 들끓고 있는 부패와 소멸로 해석되는 ‘죽음의 시학’ 등을 장석주는 밝혀 보인다.

시인들이 포착해 작품 속에 숨겨둔 이미지, 그 이미지를 다시 시학으로 끌어내는 것만큼 수고로운 것이 있을까. 시를 쓰는 문학평론가이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박용두 기자



밤새도록 긁어대던
'들이',
이젠 치마도
입어요

《아빠 가려워》 김충희 | 청년사 | 292쪽 | 값 9,800원



시멘트 바닥처럼 거친 피부에 머리카락도 제대로 나지 않는 아이라니... 말만 들어도 가슴이 미어진다. 남이 봐도 가슴이 아프니 부모는 오죽하겠나. 모르긴 몰라도 밤새도록 "가려워, 겨양이, 긁어줘"라고 말하는 아이를 곁에 두면 나라도 대신 아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지 모른다.

만화가 김충희 씨의 아토피안 육아기 《아빠, 가려워》는 이런 고생담을 만화로 그려낸다. 다섯 살배기 여자아이 들이의 몸은 다른 아이들과 완전히 다르다. 이마는 코끼리 피부처럼 두껍고 할머니 얼굴처럼 주름으로 가득하다. 겨드랑이엔 멍울이 있고, 손등, 발등은 틈새마다 갈라져 있다. 이상한 악취도 풍긴다. 흔히 말하는 아토피안이다.

남편이 육아를 책임지고, 아내가 사회활동을 하는 '체인 지족 부부'인 김충희 씨 가족의 체험기는 완치기록은 아니다. 아빠는 결과보단 과정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한 들이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 시종일관 긁어대는 아이 캐릭터는 여느 만화 캐릭터 못갈게 익살스럽고 귀엽지만 독자는 마냥 웃지 못한다. 아토피에 좋은 음식이라면 뭐든지 사갖고 들어오는 엄마, 손으로 긁다 못해 빗으로 긁고, 식탁 모서리에까지 몸을 비벼대는 아이, 아이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만화도 못 그리는 아빠. 아토피안 육아기는 가슴 아프다 못해 잔인하단 느낌까지 전해준다. 김충희 씨 말처럼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고, 논의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닌지까지 생각해 보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들이는 완치되지 못했다. 그나마 풍욕과 야생초로 차도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가려움에 시달린다. 그러나 아빠는 고통스런 시간 동안 아이의 몸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가짐을 바꿀 때 치유의 가능성이 보인다는 걸 깨닫는다. 베테랑 아토피안 육아전문가가 된 아빠는 "목욕탕도 못 갈 만큼 긁어대는 아이라 하더라도 집에만 두고 키우진 말라"고 충고한다. 들이는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며 친구도 사귀고 나지 않던 땀도 흘리며 조금씩 가려운 걸 참는 법을 배우가는 중이다. 또한 꼬마숙녀답게 가려움을 참고 치마도 입어봤다는 소식이다.

김정연 기자



반란은 이제 시작,
식탁을 노려라!

《음식국부론》 우석훈 지음 | 생각의나무 | 240쪽 | 값 12,000원



《아픈 아이들의 세대》로 미세먼지 PM10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는 저자 우석훈이 이번에는 음식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에게 중요한 화두는 여전히 '생명'이다.

인간의 것 그 이상의 역사를 가지며 인류와 함께 진화해 온 음식은 문화와 사회적으로 해석되기 어려운 다양한 지평과 사회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음식, 무엇이 문제인가. 이에 대한 답을 하자면 그는 음식의 덕목부터 따진다. 곧, '사람이 먹어서 안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음식을 먹고 살아야 한다. 그는 '이 덕목을 갖추지 못한 음식은 결코 음식이랄 수 없으며 인간사회를 타락시키는 평균 같은 존재일 뿐'이라고 단언한다.

20년 전, 우리나라에서 최초 유기농 공급을 시작했던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농산물과 음식 재료를 구해 먹는 사람들의 숫자가 현재는 2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 음식에 대한 위험성은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가 염려하고 있는 대상은 지금의 아이들, 혹은 미래의 아이들이다. 십수 년이 지난 후 그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대답은 '아니오'다. 그는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는 국내의 정책을 개탄한다.

《음식국부론》은 음식과 국가, 음식의 재료 및 기원, 음식과 정치경제학 등 음식을 둘러싼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에 대한 고찰과 동시에 문제점들을 거론한다. 오직 값싼 재료를 위한 생산 유통시스템 속에서 생성된 '공장 음식'들과 합성조미료 생산업자와 중개업자, 농림부와 건설회사 등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존재임을 자각하기도 한다. '도마 위에 오른 밥상'이라는 부제처럼 식탁 위의 밥상, 사회의 밥상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쏟아진다.

건강한 밥상이야말로 건강한 사회와 부유한 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다. 우씨는 안전한 음식을 공급하기 위한 유통법, 좋은 식재료가 유통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음식혁명을 이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반란은 식탁에서 출발한다. 합성조미료 안먹기와 생활협동조합을 통한 식생활 개선이 그 시작이다.

홍이현 기자